

## 신장학 분야에서의 북한 의료지원 경험

샘안양병원 신장내과, 한민족복지재단 의료위원장

박 상 은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의료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한민족복지재단과 신장학회의 도움으로 신장내과 분야에서의 남북 의료협력을 꾀하려고 노력해 온 바 이를 간략히 정리해 보고하고자 한다.

### 들어가는 말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북한에서는 계층 간, 지역 간에 보건의료상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평양지역의 보건의료실태를 북한의 평균적 보건의료상황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개성 또는 라진, 선봉지역의 보건의료실태를 북한전역의 보건의료상황으로 오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과 지방지역, 개방지역과 비개방지역, 내륙지방과 국경지역으로 분류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에 따라, 또한 식량공급의 정도에 따라 달리 비교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1. 조사방법

필자는 북한의 보건의료실태 자료를 다음과 같은 통로를 통해 수집하였다.

#### 1) 문헌고찰

북한의 의료상황에 대한 문헌이 많지 않지만 기존의 보고된 모든 문헌을 검색하였다.

#### 2) 언론보도자료

그동안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상에 올라있는 연합통신을 비롯한 각종 보도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 3) 정부자료

통일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보고서와 홈페이지를 검색하였으며, 통일연구원, 대한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 정부산하 기구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 4) NGO (비정부기구)의 활동보고서

북한에서 보건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하였던 국경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유진벨재단 및 기타 의약품지원 단체들의 활동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나눔운동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대북 지원 단체의 홈페이지의 문헌과 자료실을 검색하였다.

#### 5) 탈북자증언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의료인으로 활동했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료실태를 상세히 파악하되, 직능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두 세 차례의 탈북자와의 대담이 이루어졌으며, 의사출신 2명과 간호사출신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 보건의료현황을 파악하였다.

#### 6) 북한의학서적 및 북한의사 면담

북한에서 구입한 각종 북한의학서적을 참조하였으며 아울러 북한 방문 시 접촉한 북측 의료진들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 7) 북한방문 및 시찰

그동안 평양, 신의주, 라진 등을 방문했던 한민족복지재단 의료팀의 방북보고를 분석하였으며, 필자가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 평양, 개성, 기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직접 보건의료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 1차 방북: 1998년 나진, 선봉, 두만강 지역 (선봉군 인민병원)
- 2차 방북: 2000년 10월 평양 (평양인민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 3차 방북: 2005년 5월 개성 (그린닥터스 개성공단병원)
- 4차 방북: 2006년 5월 평양 (평양의과대학병원), 평남 숙천군 약전리
- 5차 방북: 2006년 11월 평양 (평양의과대학병원)

## 2. 북한의 전반적 의료실태

필자가 평양의 국가급 병원인 평양의과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 도급병원인 평양 제1인민병원을 방문하여 둘러보며 파악한 북한의 의료상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병원운영의 기본적인 전력, 난방, 수도 등의 지원설비가 미비하였고, 의료장비는 노후되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2) 무엇보다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으며, 수액제와 의약품, 시약 등의 공급 역시 원활치 못하였다. 하지만 재활용방법을 개발하여 상당부분 재생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었으며 양약 대신에 치료는 고려의학에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 3) 의사들의 지식은 개인차이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였으며, 특히 환자 치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과 열정은 대단한 감명을 주었다.
- 4) 북한 소아과 의사는 주된 소아질환으로 세균성 위장질환, 폐렴, 방광염 등 신장질환, 기생충질환, 영양실조 등을 꼽았고, 영양실과 중환자실 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구충제와 비타민, 항생제 등을 위해 CT, MRI 등 고가장비를 선호하는 고위직 당 간부들과는 대조적이었다.
- 5) 특수 분야의 경우, 심장수술은 몇몇 병원에서 시행 중이었으며 의료장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수술을 해내고 있었으며 수술성적도 비교적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공신장실의 경우, 김만유병원에 2대의 투석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은 치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척 안타까웠다. 평양의과대학병원의 경우 인공신장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식수술이 두 차례 시행되었으며 면역억제제의 공급과 기타 의료 여건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 3. 북한의 혈액정화실 역사 및 현황

북한에서는 신장이라는 용어 대신 ‘콩팥’으로 표현하여 신장내과도 ‘콩팥내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인공신장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화료법실’ 또는 ‘혈액정화실’로 표기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정화요법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1973년 처음으로 현대적 혈액정화요법이 임상에 적용되었으며 당시 사용된 투석기는 러시아제였으며, 이후 프레제니우스 LD III 기계가 사용되었다. 북한에서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간간히 급성신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석치료가 김만유병원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체적으로 혈액정화용 흡착제를 생산하였다는 기록도 보고되고 있다.

2006년 10월 현재로 인공신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내 의료기관은 당 간부들이 이용하는 남산병원, 적십자병원, 김만유병원으로 각각 2대 내지 5대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수돗물이 제한 급수되고 있으며 전기사정의 여의치 못하며 세균소독이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제대로 된 투석은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혈액투석의 적응증은 급성신부전과 응급중독증이 해당되며, 만성신부전은 적응증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북측의 경제 및 의료여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신장학분야의 서적으로는 1973년도에 발간된 급성신부전과 투석, 1962년도에 발간된 만성신부전과 투석치료로 모두 러시아판 번역서이며 북한 의학자가 발간한 서적으로는 1993년도에 김만유병원의 홍용모교수가 집필해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가 출간한 ‘혈액정화료법’으로 북측에서는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 4. 평양의대병원 혈액정화실 (인공신장센터) 설립

2000년 10월 처음 평양을 방문하면서 김일성대학 부속인 평양의과대학병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인공신장실이 없다는 사실에 신장내과인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 최고의 의과대학이라 자부하는 평의대병원에 혈액정화실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실제 환자를 진료함에도 결정적인 제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젠가 인공신장실을 세우리라 다짐하고도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수년 간 미루어지다가 2006년 5월 다시 평의대를 방문하면서 인공신장센터 설립은 활기를 띄게 되었다. 평의대 콩팥내과 의사들은 약초를 캐러 다녀야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장학연구에 강한 의욕을 보였기에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남측에서 FMC와 Baxter의 도움으로 다섯 대의 투석기를 준비하였고, 정수시설과 기타 모든 설비는 JSM의 김동수사장이 적극 도와주었으며, 한민족복지재단(김형석회장)의 도움으로 통일부로부터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건물자체의 보수를 포함해 수도와 전기공급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하는 어려움으로 남측 기술자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공사하였는데, 감격스러운 사실은 북측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노동에 참여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이다.

2006년 10월말, 다시 평양을 방문하여 준비해간 대한신장학회 학술지와 신장내과서적을 전달하였으며, 평양의대 콩팥내과 교수진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혈액정화료법의 실제적 방법을 강의하였으며 아울러 대한신장학회의 허락을 얻어 남한의 인공신장실 현황에 대해서도 필자가 강의한 바 있다. 필자 이외에도 신장학회 정회원인 안정경내과 원장과 수간호사, FMC와 JSM의 기술자들이 이틀에 걸쳐서 이론과 실체를 강의한 바 있다. 아마도 이것이 남북의 신장내과 첫 학술교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2006년 12월 1일 평양의대병원 혈액정화실이 정식 개원되었으며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던 평의대병원 의사교수인 만성신부전환자가 첫 혈액투석 대상이 되었다. 필자는 쇠골하정맥 이중도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역사적인 혈액투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투석을 받고 있음을 북측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

#### 5. 향후 보건의료지원 대책방향

북한의 심각한 의료상황은 근시안적인 질병대책으로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료시설을 가동시킬 전력공급,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질개선, 영양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난 해결 등의 기본적 보건의료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사회가 개방되어야 하고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적 발전을 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어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보건의료문제는 북한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되 무엇보다도 남한의 보건의료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북한 보건의료당국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보건의료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긴급재난구호, 전염병예방, 만성질환예방, 어린이건강사업 등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 보건의료협력사업을 해오던 유진벨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월드비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이 함께 모여 북한의 질병퇴치와 보건의료지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운 바 있다.

- 1) 북한의 보건의료문제는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북한의 다른 문제들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기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단순히 질병퇴치나 선진적인 의료기술 지원 이전에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 2) 의학교육을 포함한 대북 보건의료 교류협력활동은 시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호협력 및 상호보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3) 앞으로는 국제기구(WHO)가 제시하는 양질의 표준 의약품들이 북한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결핵약, 항생제 등 몇 가지 중요한 질환의 퇴치를 위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의약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기초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약품생산을 돕기 위한 의약품 원료지원, 제약공장 및 의료기기 공장의 건립, 최신병원설비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5) 우선순위의 결정은 북한 의료당국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들에 대한 영양공급, 결핵퇴치를 위한 노력, 구충제지원, 말라리아 및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노력, 항생제지원 등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논의되었다.

### 맺는 말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남한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더욱이 분단된 조국의 남쪽에 태어나 의사가 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일까? 북한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결핵을 비롯한 전염병 현황은 한가로이 통일 후를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다급하고도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통일 후에 마주치게 될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 남한의 의료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아온다면 급속도로 북의 경제가 나아질 것이며, 머지않아 문호가 열리게 될 것이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한 남측의 의료진들이 힘을 모아 북측의 콩팥내과 의사들과 교류하며 남북 간에 신질환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수만 있다면 북한에서 각종 신질환과 만성신부전으로 죽어가는 수만 명의 생명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이제라도 남북의 의료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기꾸어 나간다면 미래의 건강한 통일조국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